

보험권 대출 9000억 증가...해약 늘며 가계 '현금창구' 전략

4월 감소서 한 달 만에 증가세
해약환급금 17조8400억 29.7% ↑
신계약 건수·금액 등 동반 감소
당국, 제2금융권 대출 관리 강화
생활·투자수요 겹치며 현금화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가계대출 이미지.

가계부채 비상관리 체계가 가동된 가운데 보험권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시 상황에 따른 투자자금 수요와 생활자금 수요가 겹친 가운데 보험 해약까지 늘면서 보험이 장기 보장자산이 아닌 가계의 단기 현금창구로 활용되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3000억원 증가했다. 보험권 가계대출은 4월 4000억원 감소에서 5월 9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다만 보험권 가계대출 9000억원 증가분을 모두 보험계약대출 증가로 볼 수는 없다. 보험권 가계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보험계약대출은 가입자가 보유

한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돈을 빌리는 상품이다.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활용해 왔다.

문제는 보험권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한 시점에 금융당국의 관리 압박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자 관리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회의를 매주 열기로 했다. 은행권에는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신용대출 중도 상환수수료 면제 등 자율관리 조치를 추진

하도록 했다.

가계대출 관리는 은행권에만 머물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 흐름도 함께 살피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이미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낮춰 운영하고 있다. 빚투와 미상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지만, 생활자금 목적의 대출 수요까지 함께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권 대출 반등은 보험 해약 증가와 별개의 통계지만, 가계의 현금 수요와 보험계약 유지 부담을 동시에 보여주는 지

표라는 점에서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돈을 빌릴 여력이 있는 가입자는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하지만, 보험료 납입 부담이 커지거나 상환 여력이 부족한 가입자는 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명보험사의 해약환급금은 크게 늘고 있다. 22개 생보사의 올해 1분기 해약환급금은 17조84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3조7551억원보다 29.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인보험 신계약 건수는 309만 429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9% 줄었다. 신계약 금액도 51조9009억원에서 46조 2118억원으로 11.0% 감소했다.

보험사 입장에서 해약 증가, 신계약 감소, 대출 관리 강화가 동시에 부담이다. 해약 증가는 계약 유지율과 미래이익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계약 감소는 새 수익원 확보를 어렵게 한다. 여기에 보험계약대출 관리까지 강화되면 고객 유지와 이자수익 방어 여지도 줄어든다.

소비자 부담도 작지 않다.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을 유지한 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해약은 보장 공백으로 이어진다.

특히 고령층이나 유병력자는 보험을 해지한 뒤 같은 조건으로 재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단기 현금 확보를 위해 보험을 깨는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의료비와 보장 공백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의미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권 대출 증가를 단순한 빚투 수요로만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투자 목적 자금과 생활자금 수요가 섞여 있는 만큼 일률적인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다만 해약과 대출이 동시에 늘어나는 흐름은 보험사의 성장성뿐 아니라 소비자의 보장 유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투자 목적 자금과 생활자금 수요가 섞여 있어 일률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다만 해약과 대출이 동시에 늘어나는 흐름은 보험사의 성장성뿐 아니라 소비자의 보장 유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471@metroseoul.co.kr



metro

삼성·SK, HBM4E 경쟁 본격화... 승부처는 엔비디아 인증·수율

삼성, 12단 샘플 출하 공식화
SK하이닉스, 고객사 공급 앞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주도권을 놓고 정면 승부에 나섰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4E 샘플 출하를 공식화하며 기술 선점에 나선 가운데, SK하이닉스도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HBM4E 샘플 공급을 앞두면서 양사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의 인증과 안정적인 수율 확보가 최종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최근 HBM4E 개발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

를 확보하고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샘플 출하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HBM4E 샘플 출하 시점이 이르면 이달, 늦어도 7월이 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콘퍼런스콜에서 "내부적으로는 하반기 샘플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최근 들어 이보다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HBM 시장의 무게 중심이 HBM4E와 고단 적층 제품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HBM4E 12단 샘플 출하를 공식화했다.

삼성전자의 HBM4E는 설계·공정 최적화를 통해 핀당 동작 속도를 14Gbps에서

최대 16Gbps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전자인 HBM4 대비 20% 이상 향상된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개를 단순한 신제품 발표를 넘어 차세대 HBM 시장의 표준 주도권을 겨냥한 기술력 과시로 해석하고 있다.

국내 메모리 업체들은 HBM5 사양을 제시하는 한편, 선단 패키징 기술 경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2일 대만에서 열린 '컴퓨터스 타이베이 2026'에 나란히 참가해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와 HBM 성과를 적극 알렸다. 다만 이들 기술의 최종 관문은 엔비디아의 인증 체계를 통과하는 데 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국내 메모리 업체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엄격한 검증 기준을 통해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젠스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을 계기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과는 잇단 회동이 이뤄지면서 HBM 주도권을 둘러싼 양사의 전략적 선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HBM 시장 주도권이 여전히 SK하이닉스에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58%로 가장 높았으며,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은 각각 21%를 기록했다. HBM4E 초기 샘플 출하 경쟁에서는 삼성전자가 한발 앞섰지만, SK하이닉스

역시 12단 48GB HBM4E 출시 계획과 함께 향후 5년 내 생산능력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양사의 주도권 다툼도 팽팽하게 전개되는 분위기다.

특히 HBM4E 샘플 출하 여부와 실제 양산 수율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향후 수율 확보가 시장 관도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선점한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율 개선 속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파운드리 부문 역시 TSMC와 비교되는 수율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고객사 확대와 실질적인 수주 증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함께하는 연호
도약하는 포항

혼자하면 '힘든'육아

함께하면 '든든'육아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포항 ♥

창의 융합 혁신 포항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

함께하면 '든든'육아 성공비법

결혼지원

- ① 미혼남녀 커플매칭
- ②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 ③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출산지원

- ① 난임부부 시술비
- ② 기형아 검사비
- ③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 ④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돌봄지원

- ① 24시간 365어린이집
- ② 공동육아·놀이터
- ③ 다함께돌봄센터
- ④ 직장맘&이른아이 SOS

일·가정 양립지원

- ① 영마중산단 / ② 우리동네 어버이교실
- ③ 소상공인 아이보통 사업
- ④ 다자녀 가족 영화관, 행복운동회

주거지원

- ① 청년 신혼부부 월세
- ②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 ③ 포항형 친원주택

양육지원

- ① 출생 축하금 / ② 첫만남이용권
- ③ 부모급여, 아동수당
- ④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 ⑤ 다자녀가정 특별양육비

포항시